

http://dx.doi.org/10.17703/JCCT.2022.8.4.289

JCCT 2022-7-36

교양과 인성 수업에 나타난 학생들의 반응과 자기 이해

Students' Responses and Self-understanding in Liberal Arts and Personality Class

박주은*, 박성혜**

Joo Eun Park*, Sung Hae Park**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S 대학교 교양필수과목 중 하나인 교양과 인성 수업에 나타난 학생들의 반응과 자기 이해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수업에서 학생들의 긍정적인 변화에 미친 영향 정도는 5단계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보통 이상의 높은 단계의 반응이 나타났다. 특히 연구자가 실시한 영화 토의 결과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둘째, 그림 검사 분석 결과 스트레스와 자원 척도를 통한 대처 능력의 변화가 학생들에게 나타났으며, 학생들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봄으로써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본 연구는 문학과 예술, 그리고 영상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하고 토의를 통해 책임감, 리더십, 협동심, 배려, 소통, 공감 등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수업 예시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 교양, 인성, 학생들의 반응, 자기 이해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tudents' responses and self-understanding in the liberal arts and personality class, one of the compulsory liberal arts subjects at S Universit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degree of influence on students' positive change in this class was higher than normal using a five-step Likert scale. In particular, as a result of the film discussion conducted by the researcher, satisfaction was very high. Second, as a result of picture test analysis, changes in coping ability through stress and resource scales were seen in the students, and it was an opportunity for students to understand themselves by looking into their minds. This study presented example of classes that can cultivate students' personality through literature, art, and video, and cultivate their qualities as global citizens, such as responsibility, leadership, cooperation, consideration, communication, and empathy, through discussion.

Key words : Liberal Arts, Personality, Students' Responses, Self-understanding

I. 서론

현대 사회에는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 범죄의 원인은 인성 부재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학벌 중심 사회 분위기로 인해 학생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공부에만 매진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성 교육보다는 성적 향상을 위해 지식 정보 축적에 초점을 둔 교육이 진행되었다. 그러므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정회원, 상명대학교 글로벌인문학부대학 글로벌지역학부
영어권지역학전공 부교수 (제1저자)

**정회원, 숙명대학교 심리치료대학원 미술치료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2년 6월 20일, 수정완료일: 2022년 7월 2일
게재확정일: 2022년 7월 9일

Received: June 20, 2022 / Revised: July 2, 2022

Accepted: July 9, 2022

**Corresponding Author: elly9691@sm.ac.kr

Dept. of Art Therap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sychotherapy, Korea

지성인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교양과 인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실정을 파악한 S 대학은 교양필수 과목으로 '교양과 인성'을 신입생 대상으로 진행해왔다. 이 과목은 전공지식에 얽매이지 않고 지성인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디며, 세계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교양과 인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양필수 과목이다. 학생들의 교양과 인성을 길러주는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강연, 심리검사, 독서, 토론, 문화 및 예술 경험 등 관련 활동을 수행하며, 학우와 교수진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가치관을 공유함으로써 성공적인 학교생활 및 가치 있는 인생 설계를 돕는 사제동행형 교과목이다. 특히 2018학년도부터 '마음 프로젝트'라는 주제 아래 5개 교육 활동을 기반으로 이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이 교육 활동은 마음 새김, 마음 얻음, 마음 챙김, 마음 살림, 그리고 마음 나눔이다. 1주일에 1시간 1학점이고 평가는 Pass/Fail이다. 소속 학부나 학과 교수 1인과 신입생 소수의 학생으로 분반이 구성되어 운영된다. 이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들은 한 학기 동안 15시간 수업을 진행하고 계당교양교육원에서 제시한 수업 방식을 기본으로 하여 재량껏 진행한다.

연구자는 2022년 1학기에 계당교양교육원에서 제시한 수업 방식을 바탕으로 수강 전 설문지를 조사하여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5개 교육 활동을 운영하였다. 특히 그림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자원 분석 활동을 추가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교육 활동을 지도한 후 학생들의 반응과 그림 분석을 통해 스트레스와 자원 척도를 통해 대처 능력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수강 전과 후 설문지를 조사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양과 인성 수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인성교육과 세계시민교육

교양과 인성 수업의 학습목표는 학생의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S 대학교의 인재상은 지성인 역량, 공감인 역량, 실천인 역량, 창의인 역량, 세계인 역량인데, 이 중에서 세계인 역량은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함양된다.

1. 인성교육

인성은 사람의 성품,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 개인이 보이는 고유한 행동양식이며,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내는 독특하고 일관성 있는 사고, 정서, 행동의 표현양식 또는 고유한 적응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으나 그 방법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유학 사상을 대안으로 제시한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유학의 궁극적 목표가 성인이 되는 것, 즉 도덕적으로 이상적인 인간이 됨을 뜻하기 때문이다. 성인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서 교육이라는 것은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 사회의 발전에 도움을 목적으로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의 목적과 유사하다 [1].

이 인성교육진흥법은 한국에서 2015년 제정되고, 2020년 8월에 개정되어 9월에 시행되었다. 인성교육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성교육은 가정 및 학교와 사회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 둘째, 인성교육은 인간의 전인적 발달을 고려하면서 장기적 차원에서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인성교육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참여와 연대 하에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 법은 기본 방향 이외에도 제6조 인성 종합계획의 수립 등 조항이 있다 [2]. 이 법에 명시된 첫 번째 인성교육의 기본 방향이 가정 및 학교와 사회에서 장려인데, 한국 사회의 현실은 대학 입시를 위한 암기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인성교육이 어디에서나 등한시되어왔다.

그러므로 대학에서는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는 교양교육 영역의 한 분야인 인성교육에 관한 강의 영상을 유튜브로 제작하고 대학생 대상 인성 함양 교과목을 지원하였다 [3]. 구체적으로 여러 대학에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K 대학은 2011년 교양교육을 담당하기 위한 후마니타스 칼리지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간의 가치 탐색,' '우리가 사는 세계,' '시민교육'이라는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이 대학의 교양교육은 교양교육과정이 천편일률적인데 비해 성공적인 모형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 SK 대학은 논어와 리더십, 인문학과 연계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5]. J 대학은 '인성' 과목을 교양필수로 개설하고 있다 [6]. 이외에도 SW 대학은 공동체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7].

특히 S 대학은 2010년부터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양과 인성’ 수업을 실시하고 있고, 이 과목은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양교육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대학 인성교육 3대 키워드는 비움, 채움, 나눔이다. 다시 말해 자기 성찰을 통한 비움과 교육 활동을 통한 채움을 기반으로, 지성과 소양을 쌓아 타인을 배려하고 지역과 사회에 기여하는 나눔을 행하는 것이다 [8]. 이와 같이 한국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이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이 교육은 정체성 교육, 가치교육, 의사소통 능력교육, 공감과 연대 능력 교육, 공동체 교육, 문화 이해 교육을 포함한 포괄적인 차원의 자기 이해와 타자 이해 및 세계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9]. 이 인성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는 꾸준히 행해지고 있다.

인성교육 교과 개발과 운영에 관한 것으로는 ‘온라인 수업 기반 대학 인성교육 교양교과 운영방안’ [10]과, ‘대학생의 인성교육을 위한 교양교육과정 개발: E 대학을 중심으로’ [11]가 있다. 전자는 온라인 수업 기반 인성교육을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였고, 후자는 교양교과와 연계된 비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인성 수업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마음 챙김에 기초한 교양강좌가 대학생의 인성발달에 미치는 효과,’ [12]와 ‘대학 신입생을 위한 인성교과목 수업의 효과성 분석’ [13]이 있다. 전자는 마음 챙김에 기초한 교양강좌가 주의 집중, 사회적 연결감, 자아존중감이 증가한 효과를 보여 주었다. 후자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된 인성 교과목의 수업 효과가 학생들의 심리적 성숙도를 향상한 효과를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인성교육을 포괄적으로 정의한다. 한마디로 인성교육은 인간의 됨됨이, 좋은 성품을 지니게 지도하는 것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도덕과 예의를 배우고,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2. 세계시민교육

현대 사회에서 시민의식은 매우 중요하다. 시민의식은 사회 구성원 개개의 정신적 태도와 양상을 일컫는 개념으로 시민으로서 올바르게 견지해야 할 의식이다. 이러한 시민의식은 원래 중세도시 신분 계급에서 시작하여 점차 근대 사회의 혁명을 거치면서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법 앞에 평등한 대우를 받는 시민이 갖추어야 할 정치적 의식으로 발전되었다.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경제적 의식으로도 확대 해석되었다.

오늘날 한국의 시민의식은 이와 같은 서구의 정치·경제적 시민의식을 동시에 포함한다. 왜냐하면 한국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동시에 받아들이면서 건국되었고, 국가의 성장도 그러한 과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전통적인 민족의식, 동양 전통의 유교나 불교 등과 같은 정신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서구에서 발원된 ‘시민의식’의 개념은 한국 사회에서는 ‘시민 가치 의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14]. 그리고 이 개념은 ‘시민성’이라고도 불릴 수 있다. 시민성이란 행동에서의 사회적 책임감으로 사회적으로 책임지기, 공동의 선에 참여하기, 의견을 표출하고 투표를 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지역공동체 봉사 수행하기, 환경 보호를 돕기, 법률을 준수하기 등을 포함한다 [15].

이와 같은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시민교육이 필요하다. 기업과 대학에서는 책임을 강조한 시민교육을 중요하게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수많은 대학에서는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시민교육은 세계화 시대에 지구촌으로 확대되어 세계시민교육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국경의 경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문화, 경제, 정치 등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정보화 시대로 인해 언제든지 전 세계의 일을 실시간으로 접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국내 대학의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교과목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E 대학의 ‘세계시민사회’, Y 대학의 ‘세계시민주의’, K 대학의 ‘시민교육, 그리고 SS 대학의 ‘세계시민교육과 글로벌 리더십’ 등이 있다 [16].

이 세계시민교육은 지구촌의 문제들 다시 말해, 환경 문제, 자원 문제, 빈곤과 질병, 글로벌 경제의 불평등, 주권, 전쟁과 평화, 다문화 시대의 공존, 종교와 포용의 문명, 그리고 글로벌 사이버 세계의 위협 등의 문제를 세계 시민에게 이해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켜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계 시민에게 필요한 것이 연대와 공감이라는 것이다 [17]. 한마디로 세계시민교육은 이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며, 자신의 나라와 다른 나라의 문화와 문제들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S 대학교 2022년 대학 신입생으로 교양필수 과목인 '교양과 인성' 교과목을 수강한 7명이다. 이 과목은 소수의 학생들과 소속 학부나 학과 교수로 구성된 분반 수업이다. 수업은 총 15주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제외한 총 13주의 1주일에 1시간으로 운영하였다. 수업 방법은 특강 영상과 실시간 온라인 수업, 그리고 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진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형태의 수업이었다. 블렌디드 러닝이란 면대면 수업의 장점과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혼합한 교수·학습 방법이다 [18]. 면대면 수업의 장점은 집중도와 몰입도가 높고 교수자와 학생들과의 상호 작용이 좋은 반면에 온라인 수업은 시간과 장소 제약을 받지 않고 강의 영상을 반복과 재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1) 설문지 조사

2022년 3월 첫째 주 수업 시간에 수강 전 설문지를 조사하였다. 내용은 구체적으로 자기소개, 고민, 졸업 후 원하는 진로 방향, 이 강좌에서 배우고 싶은 것, 방학 동안 자신이 가장 잘 했다고 생각하는 일과 후회하는 일 등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만남과 자기표현 표를 사용하여 자신이 행복할 때와 속상할 때, 자신이 좋아하는 것, 현재 자신의 모습, 미래 계획, 자신의 자랑거리 등에 대해 글로 작성하여 발표하도록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수강 후 설문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2) 빗속의 사람 그림 검사

교양과 인성 교과목의 학습목표인 인성 함양을 위해서는 먼저 자기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기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그림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그림 검사를 통해 자신의 대처 능력을 살펴봄으로써 자기 이해를 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써 활용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사용한 그림 검사는 대학생의 스트레스 수준과 대처자원 수준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Abrams와 Amchin [19]이 처음으로 고안한 빗속의 사람 그림 검사(Draw A Person in the Rain: DAPR)를 사용하였다.

실시 방법은 피검자에게 A4용지 1장, 연필, 지우개를 준비하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속에 있는 사람을 그려주세요. 단, 만화나 막대기 같은 사람이 아닌 완전한 형태의 사람을 그려주세요. 어떤 내용을 그리든 어떤 방향으로 그리든 자유이며 옆 사람 그림을 모방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대로 그려 주세요.”라고 지시하였다. 그림을 그린 후 그린 순서와 그림 속의 인물은 누구이며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그림 속 현재 주인공은 기분이 어떠한지를 답변하도록 하였다. 채점 체계는 Lack(1996)의 평가 기준을 사용하여 스트레스 척도 16개 항목과 자원 척도 19개 항목으로 총 35개 항목을 채점하였다. 스트레스 점수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으며 자원 점수의 경우는 스트레스를 다루는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

3. 연구 내용

2022년 1학기 1학년 7명을 대상으로 교양과 인성 교과목을 지도하였다. 구체적인 강의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강의계획서
Table 1. Syllabus

| 주 | 수업 내용 |
|----|----------------------------|
| 1 | 강의 소개하기 |
| 2 | 계당 열 상명에 특강 |
| 3 | 조지 오웰의 <1984> 영상 |
| 4 | 김형석 교수의 특강 |
| 5 | 진로 설정과 직무 선택 특강 |
| 6 | 조지 오웰의 「1984」 감상문 발표 및 토의 |
| 7 | 다음 카페에 있는 P 교수님이 쓰시는 글 읽기 |
| 8 | 중간고사 |
| 9 | 심리검사 워크숍 |
| 10 | 심리검사 워크숍 |
| 11 | <3 idiots> 영화 시청 |
| 12 | <3 idiots> 영화 감상문 발표 및 토의 |
| 13 | 이창호 교수의 「다름의 극복과 자아 개발」 영상 |
| 14 | 그림 분석 특강과 마무리 |
| 15 | 기말고사 |

이 표는 강의계획서 중에서 수업 내용만 나타낸 것이다. 이 수업 내용 중에서 2주부터 5주까지의 특강, 9주와 10주 심리검사 워크숍, 그리고 13주 특강은 계당 교양교육원에서 제작하여 이 과목 담당 교수진 모두에게 사이트 주소가 전달되어 공통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연구자는 학생들로 하여금 특강을 시청한 후에 감상문을 과제로 이캠퍼스에 제출하게 한 후에 대면 수업 시간에 발표하고 토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마음 나눔 활동으로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1984』 책을 읽고 감상문 발표와 토의를 진행하였는데, 학생들이 조지 오웰의 <1984> 영상을 미리 시청하여 배경지식을 가지도록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3 idiots》 영화를 개별 시청하고 자신의 꿈, 자신이 원하는 직업과 연계하여 감상문을 과제로 제출하도록 지도하였다. 그리고 대면 수업 시간에 독서 지도안을 바탕으로 만든 토의 안을 배포하고 토의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SM 대학의 심리치료대학원 교수의 그림 분석 활동을 진행하였다. 사전 그림과 사후 그림 분석을 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활동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이 수업은 COVID-19 상황에 맞추어 대면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융합한 형태의 블렌디드 러닝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IV. 연구결과

1. 설문지 조사 결과

수강 전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학생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학교생활 적응 문제와 친구 사귀기, 자기 소신이 뚜렷하지 않은 점, 공부 방법, 영어 점수, 그리고 전공 선택 등에 관한 것이다. 둘째, 이 강좌에서 배우고 싶은 부분은 생각을 조금 더 성숙하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 확장, 진로, 현재의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방법, 토익에 대한 팁, 너그럽게 마음 쓰는 법, 그리고 대학 생활 등에 관한 것이다. 이 결과를 통해 대학 생활에 대한 적응과 인성, 성숙한 사고를 함양하고 싶은 마음과 학업에 대한 학생들의 열망도 파악할 수 있었다.

수강 후 설문지를 조사하여 5개 교육 활동의 영향에 대해 5단계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설문지 문항 1번부터 5번까지는 계당 교양교육원에서 제시한 것을 사용한 것이고, 6번과 7번은 연구자가 작성한 것이다. 표 2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 수업이 자기 이해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자기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스트레스 대처 능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설문지 문항을 추가하여 0에서 10까지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수업에 참여한 소감을 서술 형식으로 답할 수 있도록 문항을 추가하였다.

표 2. 설문지 내용과 리커트 척도

Table 2. Questionnaire Content and Likert Scale

| 번호 | 문항 | 전혀 그렇지 않음 | 그렇지 않음 | 보통임 | 그려함 | 매우 그려함 |
|----|-------|-----------|--------|-----|-----|--------|
| 1 | 마음새김 | 1 | 2 | 3 | 4 | 5 |
| 2 | 마음나눔 | 1 | 2 | 3 | 4 | 5 |
| 3 | 마음챙김 | 1 | 2 | 3 | 4 | 5 |
| 4 | 마음연음 | 1 | 2 | 3 | 4 | 5 |
| 5 | 마음살림 | 1 | 2 | 3 | 4 | 5 |
| 6 | 영화 토의 | 1 | 2 | 3 | 4 | 5 |
| 7 | 그림분석 | 1 | 2 | 3 | 4 | 5 |

표 2의 문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음 새김] ‘桂堂(계당)열 상명(애)’ 특강 시청 등 마음 프로젝트 마음 새김 모듈의 학습활동이 여러분의 긍정적 변화에 미친 영향 정도를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둘째, [마음 나눔] ‘하나의 책, 하나의 상명’ 특강과 독후 활동 등 마음 프로젝트 마음 나눔 모듈의 학습활동이 여러분의 긍정적 변화에 미친 영향 정도를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셋째, [마음 챙김] ‘진로취업특강’, ‘심리검사 워크숍’ 참여 등 마음 프로젝트 마음 챙김 모듈의 학습활동이 여러분의 긍정적 변화에 미친 영향 정도를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넷째, [마음 연음] 인문특강 시청 등 마음 프로젝트 마음 연음 모듈의 학습활동이 여러분의 긍정적 변화에 미친 영향 정도를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다섯째, [마음 살림] 전시, 공연, 영화 관람 등 마음 프로젝트 마음 살림 모듈의 학습활동이 여러분의 긍정적 변화에 미친 영향 정도를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여섯째, 《세 일간이》 영화 감상 후 토의 지를 작성하였는데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고 자신의 꿈에 대해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일곱 째, 그림 분석 활동으로 자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

이와 같은 문항으로 설문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음 새김] 활동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변화에 미친 영향 정도가 보통이 29%이고 그려함이 71%에 달한다. 둘째, [마음 나눔] 활동은 학교에서 제시한 책 조지 오웰의 『1984』를 읽고 학생들에게 긍정적 변화에 미친 영향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활동 1의 결과와 동일하다. 셋째, [마음 챙김] 활동은 학교에서 진행한 심리검사 워크숍인데, 학생들에게 긍정적 변화에 미친 영향 정도가 보통이 71% 정도이고 그려함이 29%이다. 넷째, [마음 연음] 활동은 보통 57%, 그려함이

29%, 매우 그러함이 14%로 다양한 결과가 나왔다. 다섯째, [마음 살림] 활동은 보통 14%이고 그러함이 86%로 다른 활동들보다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그 이유는 문화 체험이라 학생들의 반응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마음 살림]의 일환으로 연구자가 진행한 《세 얼간이》 영화 감상 후 토의지를 작성하고 토의한 결과는 그러함이 57%, 매우 그러함이 43%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 이유는 이 영화가 인도 대학 생활을 소재로 인도의 학벌 위주의 사회 분위기가 한국과 유사하고 대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고 공감을 많이 한 것으로 파악되고, 친구의 꿈을 응원하고 도와주는 우정, 자살 문제 등을 생각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SM 대학교수의 그림 분석 활동 결과는 그러함이 29%, 매우 그러함이 71%이다. 이 활동은 14주에 줌 수업으로 진행하였으며, SM 대학교수는 빗속의 사람 그림에서 ‘비’의 상징은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 혹은 불안을 유발하는 인물의 환경을 의미한다고 설명한 후에, 그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개별 질문을 통해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하여 학생들이 자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설문조사 결과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자기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성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성장으로 인해 인성 함양과 세계 시민 자질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본 수업에 참여한 소감을 표 3에 제시하고자 한다.

표 3에서 보듯이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반응과 소감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성찰이 되었으며 대학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긍정적 반응은 추가 설문 사항의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이 수업이 자기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되었고 자기 상에도 변화를 주어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는데 수업 후 자신이 괜찮은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평가다. 또한 이 수업 후 자신이 우울하거나 힘들 때 그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생긴 것 같다고 서술하여

표 3. 이 수업에 참여한 소감
Table. 3 Feelings of Participating in This Class

| 학생 | 소감 |
|----|--|
| A | 같은 과 친구들을 만나 소통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교양과 인성 수업을 통해서라도 만나게 되어서 좋았고, 그림을 그려서 내 심리를 알아보는 등의 활동도 해서 알차던 것 같다. 교수님도 정말 좋은 분이셔서 항상 감사했던 수업이었다. |
| B | 나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 좋았으며 나를 더 잘 알게 된 것 같다. |
| C | 이 수업이 없었다면 궁금해하지 않았을 것들을 알게 되고 찾아보게 되어 많은 것을 알아가는 것 같아서 좋았다. |
| D | 여러 가지 영상을 보면서 보고서를 쓰고 평소에는 보지 않던 책도 읽어보며 나를 생각하게 만들어준 수업이었던 것 같다. 대학교에 들어와서 모든 게 새로웠던 나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업 같았다. 교수님도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많은 정보와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했는데 그것들이 나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다. |
| E | 교양과 인성 수업을 통해 제 자신을 잘 돌아 보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 아주 뜻깊은 시간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
| F | 수업을 들으며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다양한 강의들도 들을 수 있었다. 감상문을 제출하면서 내 생각에 대해 정리도 해볼 수 있었고, 이런 시간들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건지 등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 보고, 나를 더 많이 알 수 있게 된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
| G | 처음 교양과 인성 수업에서 어떤 것을 배우고, 배움을 통해 과연 내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궁금했었는데, 수업을 통해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들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스스로에게 솔직하고 스스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아직 더 나은 내가 되는 법을 알아가는 단계에 있지만, 이 수업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면 수업에 나갔던 날,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도 내게 정말 큰 위로와 동기가 되었다. |

긍정적인 효과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 이외에도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양을 함양할 수 있었다. 교양은 학문, 지식, 사회생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위, 또는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수업은 학생들이 교양을 함양하고, 대면 수업이 자유롭지 못한 COVID-19 상황에서 친구를 사귄다 할 수 있는 기회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도덕적 가치를 습득하고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인성교육과 시민교육을 실행한 교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2. 빗속의 사람 그림 검사 분석 결과

인성 수업에 참여한 여학생 7명의 빗속의 사람 그림 검사의 스트레스와 자원 척도를 통한 대처능력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스트레스와 대처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Table 4.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Stress and Coping Scores

| 변인 | 시기 | M | SD |
|------|----|------|------|
| 스트레스 | 사전 | 8.57 | 5.16 |
| | 사후 | 5.14 | 1.57 |
| 자원 | 사전 | 8.14 | 4.81 |
| | 사후 | 8.71 | 1.98 |

스트레스 점수의 경우, 사전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8.57(5.16)에서 사후검사에는 5.14(1.57)로 전체적으로 스트레스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의 경우에는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8.14(4.81)에서 8.71(1.9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였으며, 자원은 0에서 9로 증가하였고 대처능력 점수가 -9에서 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 학생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점수가 9에서 5로 감소하였고 자원 점수의 경우에는 9에서 8로 약간의 감소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대처능력의 점수는 -2에서 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설문지 조사에서는 자기 이해와 자기 상, 스트레스와 대처능력의 변화 정도를 수치로 표현하게 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 자기 이해가 증가하고 자기 상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파악하였다. 또한 자신의 스트레스의 경우 인성 수업 후에 감소했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 또한 증가되었다고 파악하였다. A 학생과 B 학생의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들은 인터뷰에서 학기 초 전혀 학교에서의 생활을 겪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잘 드러나지 않다가 점점 스트레스를 인식하게 되었지만 인성 수업 후에 자원이 증가함으로써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능력은 증가하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V. 결 론

본 연구는 교양과 인성 수업의 학생들의 반응과 자기 이해를 살펴보았다. 이 수업은 COVID-19 상황에 맞추어 학교에서 제시한 강의 영상과 실시간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을 융합한 형태의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 과목은 7명의 소수의 학생으로 구성되었고, 마음 새김, 마음 연음, 마음 챙김, 마음 살림, 마음 나눔이라는 교육 활동을 중심으로 지도하여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영화 《3 idiots》를 선정하여 영화를 시청하고 토의하는 활동을 하였고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인도의 대학 생활을 비교하면서 우리 사회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문제 해결력과 시험지 유출 문제 토의를 통해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었다. 또한 사전과 사후 그림 검사를 통해 이 수업 후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대처 능력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였다. 앞으로 학생들은 풍요로운 삶 위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계획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동작, 감각, 패턴(일상의 틀), 감정, 지성 각각이 균형 있게 잘 이루어지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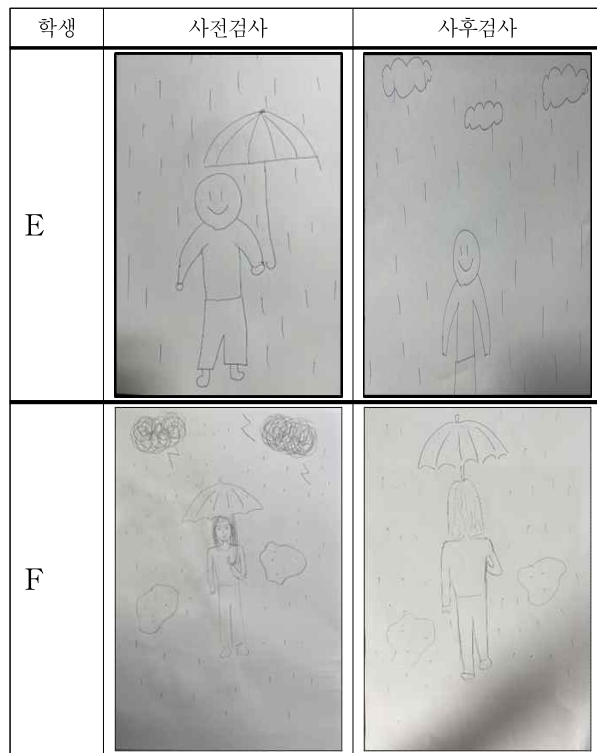


그림 1. 빗속의 사람 그림 검사 예시
 Figure 1. DAPR Example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는 E 학생의 빗속의 사람 그림 검사를 채점한 결과, 스트레스 점수가 9에서 5로 감소

해야 한다. 그리고 규칙적인 신체 운동을 해야 하고 패턴을 통해 일상 속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양과 인성 수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에서 교양교육에 인성교육 과목을 학년별로 개발해야 한다. 특히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둘째, 교수진과 교직원 모두에게 단기 인성교육을 운영해야 한다. 셋째, 인성교육을 평생교육해야 한다. 정부 기관이나 문화 센터, 그리고 대학의 평생교육원 등에서 모든 시민을 교육해야 한다. 우리는 이 과목 개발과 더 발전한 후속 연구가 나오길 바란다.

References

- [1] <http://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xno=701393>
- [2]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B8%EC%84%B1%EA%B5%90%EC%9C%A1%EC%A7%84%ED%9D%A5%EB%B2%95>
- [3] <http://konige.kr/mobile/mob06div.php>
- [4] Sung Heum Lee, Jin Gyu Kim, and Young Min Park, "The Effects of Character Education Linked with General Education on Character Development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Vol. 25, No. 6, pp. 133-153, 2019.
- [5] <https://www.skku.edu/skku/index.do>
- [6] Nan Lee, "Contents and Effects of upon the Character of Students Enrolled in Liberal Arts Character-based iClasse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 14, No. 2, pp. 205-220, 2020.
- [7] <https://www.swu.ac.kr/index.do>
- [8] <https://www.smu.ac.kr/smsg/intro/professor.do#tab10602>
- [9] Ha Jun Lee, Seo In Lee, "A Study on Curriculum for Character Education and Search for Its Directio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 9, No. 4, pp. 45-72. 2015.
- [10] Young Jun Kim, Kyung Sook Kang, "A Plan to Operate the On-line General Education Subjects for University Character Education," *Humanities Society* 21, Vol. 9, No. 4, pp. 109-120, 2018.
- [11] Eun Joo Kim, "Development of Liberal Arts Curriculum for Personality Education of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E-University," *AJMAHS*, Vol. 9, No. 5, pp. 247-258, 2019.
- [12] Jung Mo Kim, Mi Ae Jeon, "The Effects of mindfulness based course on the personal development of the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33, No. 4, pp. 833-849, 2014.
- [13] Young Ran Yoon,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Personality Education Subject for College Freshman," *APJCRI*, Vol. 8, No. 5, pp. 87-96, 2022.
- [14] Gyun Yeol Park, "A Study on the Survey Contents of the Current Civic Value Consciousness of the Korean and its Tasks," *Ethics Study*, Vol. 1, No. 93, pp. 1-25, 2013.
- [15] Chun Gi Min, "Direction of Global Programs for Enhancing Students' Character and Citizenship,"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 9, No. 3, pp. 447-486, 2016.
- [16] Kyoung A Kim, Soo Jin Kim, and Hui Jeong Kim, "Current Status and Direction Search of General Education Based on Character Education in the University," *General Education Study*, No. 12, pp. 127-155, 2020.
- [17] Dong Su Lee, *Global Village and Global Citizens*, Goyang: Human Love, 2017.
- [18] Graham, C, Blended Learning Systems: Definition, Current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In Bonk, C. J, and C. R. Graham(Eds), *The Handbook of Blended Learning: Global Perception, Local Designs*, CA: Pfeiffer, 2006.
- [19] Soon Lan Kim, Wae Sun Choi, "On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Stress and Their Reactive Characteristics on 'Child in the Rain' Drawing Test."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Vol. 11, No. 2, pp. 185-209, 2004.
- [20] Sung Hae Park, Eun Young Gil, and Jin Young Kwak, *Art Psychotherapy Theory and Practice*, Seoul: Pakyoungstory, 2021.